

## 벽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1)



니말(Nimal)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인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복음 전파의 열정을 키워왔다. 4년 전 오픈도어의 도움으로 그는 벽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자녀들의 미래뿐 아니라 스리랑카 교회의 미래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정오의 타 들어가는 태양빛에 덜 말린 벽돌과 타일들을 말리느라 그의 손은 더욱 거칠어져 간다. 52세의 니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스리랑카 교외에 위치한 작은 작업장에서 보낸다. 니말은 18년 동안 전문적으로 벽돌을 만들어왔고 그리스도인이 된지는 31년째이다. 그는 콘크리트와 속이 빈 시멘트 블록을 만드는 일을 하며 일일 노동자로서 살아 왔다. 그가 21세가 되었을 때 한 기독교 소모임에 초대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능력의 주님을 영접했다.

“그 당시 저는 술에 찌들어 있었는데, 사실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스펠송을 연주할 때 마치 저녁 음악회에 온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제 호주머니에는 담배 5개비가 들어있었죠. 찬양을 들으며 평소처럼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는데 그 찰나에 저도 모르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는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찬양이 연주되는 곳으로 이끌렸고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 니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격하여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인 이었고 가난했으며 심지어 영어로 진행되는 예배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예배에 출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을 지니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 누구도 저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대할 때 늘 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문맹인인 니말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주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있었다. 니말은 비록 자신이 많은 것을 이해할 순 없었기 때문에 ‘그저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기만 했는데도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다고 간증한다.

“제가 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는 없었지만 주일 설교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 깊이 새겨 주시는 말씀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 후 2-3년이 되자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목사님 설교 도중 주님께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능을 주시겠다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그들은 지혜롭게 전하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제가 밖에 나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과 상담할 때 주님께서 저를 꼭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니말은 먼 이웃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떠나곤 한다.

그러나 복음의 불모지인 스리랑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면 항상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특히 이는 기독교인은 스파이라는 스리랑카인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한번은 니말과 그의 친구들이 정글 속 기독교 캠프로 가는 도중 폭력배들이 난입하여 그들이 가진 돈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책과 교인들 연락처까지도 모두 몰수해가는 사건이 있었다. “한 사람이 작은 열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니말은 상기되었다. “그들이 우리 자전거를 멈춰 세웠을 때 다른 젊은 남성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자전거에 꽂혀있는 깃발을 제거하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연락처를 빼앗았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몰수해갔습니다. 우리가 CIA에 소속된 스파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적개심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니말을 공격하고 있다. “제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비웃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평소와는 달리 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때일수록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진정한 환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초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논쟁을 벌입니다. 어차피 그들의 속내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비웃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폄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